

초대의 글

일시 : 2022. 9.15(목) 11:00-12:30

장소 : 수선관 907호

제9회 '수선포럼'에 초대합니다.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수선포럼'이 이번 학기로 2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선포럼'은 우리 사회과학대학이 고립된 이방인들의 군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학문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총 8건의 학술발표를 통해 사회과학대 소속 교수님들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포럼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2023년 가을학기는 사회과학대학 신입교원들의 학술발표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금번 포럼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인 사회학과 정종현 교수님을 연자로 모셨습니다. 개강과 더불어 이 행사를 통해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을 모두 만나 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수선포럼은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난 제 8회 포럼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도 수선관에서 대면행사로 진행합니다. 당일 행사 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교수식당에서 점심식사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월 15일 수선관에서 뵙겠습니다.

사회과학연구원장 최훈석 배.

* 발표: 정종현(사회학과)

Religious Attendance and Perceived Fairness of Healthcare Inequality:

Does Income Inequality Matter? (뒷 장에 초록있습니다)

* 행사관련 문의: 사회대 행정실 박찬환 계장(hwan830@skku.edu / 760-0935)

Abstract: Is religious attendance associated with perceived fairness of healthcare inequality cross-nationally? If so, does country-level income inequality moderate that association? Using data from the Health Module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1), the current multilevel analyses show that religious attenda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fairness of healthcare inequality. In addition, income inequality measured at the country level moderates the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religious attendance and perceived fairness of health care inequality becomes stronger in countries with higher levels of income inequality. We discus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views about the complex interplay of religion, healthcare inequality beliefs, and income inequality.